

오 전 예 배	1부 오전 9:30, 2부 오전 11:00	임춘배 담임목사
	3부 오후 1:00 (청년예배)	김진만 목사

1, 2부		3부 (청년)
기 원	인도자	경배와 찬양
찬 양 과 경 배	36장 (통일찬송가 36장)	
교 독 문	교독문 16번 (시편 28편)	
찬 양 과 경 배	420장 (통일찬송가 212장)	
기 도	조 윤 익 장로	임지수 청년
말 씬 봉 독	고린도후서 13장 1 ~ 13절	눅 22장 54~62절
설 교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임춘배 목사)	실패할 자유 (김진만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정예영 회장
파 송 의 노 래	주의 나라 세우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축 도	임춘배 목사	주기도문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시6:1-10)		

교회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주 일 예 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주는 아버지, 목회자, 스승주일로 드립니다.

2. 예 배 안 내 1.주일예배: 주일예배는 1,2부로 나누어 대면예배로 드리고 영상을 제공합니다.
2.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를 대면예배로 드립니다. 당분간 금요일기도회 영상 제공합니다.
3.각종행사: 각종 모임과 행사는 당분간 갖지 않음
4.헌금안내: 당분간 계속해서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개인경건훈련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읽기(3차)
 (범위:시편115편~잠언31편)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비대면 성경공부

4. 코 로 나 1 9 기 도 제 목 1. 열방이 이상송배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2. 코로나 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하루 속히 종식되어 일상의 삶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3.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야가 회복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되도록 기도 합시다.
4. 한국교회의 예배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 도록 기도합시다.
5. 선한교회가 돕고 있는 교회들과 선교지, 그리고 작고 연약한 교회들을 지켜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6. 선한교회와 가정들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5. 떡 재 공 원창범, 이주연(원이준)성도님 가정에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우리의 삶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사람의 평가보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	--

찬송 :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95장(통 82)

신앙고백 : 사도신경

본문 :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 영국 출신의 신학자인 윌리엄 로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도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곧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지혜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는 삶으로 행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편지들을 보면 감사라는 말이 무려 마흔여섯 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배고픔과 굶주림 속에서도, 고통스러운 감옥에서도 감사했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푸대접을 받아도 감사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3:17) 바울은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감사의 귀재'였습니다. 골로새서에는 이처럼 감사의 메시지가 넘칩니다. 바울은 혹독한 겨울을 로마 감옥에서 보내면서도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본문 15절을 보면 바울은 '감사하라'는 명령조의 지시보다는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자'고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생각날 때 감사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자세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보자는 권면입니다. 나의 감사 생활은 어떠한가요. 얼마나 풍성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풍족한 생활 속에서도 감사하는 생활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스트셀러 '평생 감사'(전광 목사)에서는 '감사의 적'으로 욕심·비교·염려를 꼽고 있습니다. 혹시 과도한 욕심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거나, 남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비참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마 6:34)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염려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런 적들을 물리치고 감사를 쟁취하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요소를 이렇게 정의해보고 싶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 감사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헌신합니다. 헌신은 감사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도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적은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오늘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감사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는 4월의 마지막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제 목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고후13:1-13)

서 론

바울은 성도 개인이 믿음안에 있는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것들

- (1) 바울이 아닌 너희 자신 (3,5a절)
- (2) 죄 짓고 있는 것들이 남아 있는지 (1,2절)
-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지 (5b절)
- (4) 오직 진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8절)
- (5) 마지막 권면: '기뻐하라,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11절)

본 론

2. 교훈

- (1) 나는 사람에게 인정 받고 있는가? 주님께 인정 받고 있는가?
- (2) 주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검증을 통과해야 할 부분은?
- (3)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결 론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도키모스)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 배 기 도

조윤익 장로

이태수 장로

매일 Q.T.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같은 마음을 품는 성도	날짜 : 5월 2일
찬양	찬송가 219장 주 하나님의 사랑은		
본문	고린도전서 1:10~17		
말씀요약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합니다. 저마다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속했다며 분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보, 가이오, 스테바나 가족 외에는 세례를 주지 않은 것은 주님이 침례를 주라고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목상질문 1	분쟁과 명분 1:10~13 고린도 성도들이 서로 나뉘어 앞세운 지도자들은 누구인가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하며 나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침례와 복음 1:14~17 바울이 소수의 사람에게만 침례를 베푼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동체 안에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 새로워져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1장 13절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이유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져다주는 결과는 일치와 화해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보다 성령의 은사 그 자체에 집착합니다. 은사에 대한 집착은 편 가르기와 담쌓기를 낳습니다. 교회의 분열과 갈등은 십자가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써 구할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하나 되지 못하고 다툼을 벌이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가슴을 찢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제 욕심과 기호에 따라 지도자와 성도를 나누고, 때론 비난을 서슴지 않았던 모습을 용서하소서. 십자가 복음으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어 주님을 나타내게 하소서.		

개인성경공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복음”	
찬양과 기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새 96) 완전하신 나의 주 (경배와 찬양)		
목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초기 한국 교회 기록을 살펴보면 엄귀현(1876~1951)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경동제일교회 영수 엄귀현'입니다. '영수'는 초기 한국 교회의 직분인데, 교회 청소부터 행정까지, 심지어 설교자가 없을 때는 설교까지 교회 전반적인 일을 모두 맡아서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엄귀현은 당시 양반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배운 것 없는 천민으로, 양반이 타는 말을 모는 사람이었습니다. 엄귀현이 모셨던 양반은 왕가 출신의 이재형(1871~1947)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재형은 왕손 이재황(고종)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으로 이재형이 말을 걸지 않으면 엄귀현은 말조차 붙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재형이 엄귀현에게 이것저것을 묻게 되었는데, 뜬금없이 엄귀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리, 황송하오나 오늘부터 예수를 믿으소서. 그래야 나리도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재형은 처음에는 화를 버럭 냈지만, 이후 엄귀현의 말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왕가 출신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시에 천대받던 마부의 어수룩한 복음의 메시지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말씀 나누기	고린도전서 2:1~9		
목상포인트	십자가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요 3:16 참조). 또한 십자가 복음은 신비입니다. 화려한 언변과 다양한 지식으로는 이해하거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발견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문자를 깨닫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목상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한편 그가 알고자 걱정된 것은 무엇인가요?(1~2절)		
적용하기	지혜와 화려함으로 꾸며진 말이 아닌, 단순하고 투박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도전받은 경험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어리석은 제게 십자가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게 베푸신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날마다 감격과 감사함으로 천국을 소망하게 하소서.		
기도			

매일 Q.T.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날짜 : 5월 3일
찬양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본문	고린도전서 1:18~25		
말씀요약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멸하시고,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여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지혜롭고 강하십니다.		
목상질문 1	십자가의 도 1:18~21 '십자가의 도'에 대한 사람들의 상반된 반응은 어떠한가요? 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 어떠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나요?		
목상질문 2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1:22~25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 대해 유대인과 헬라인은 어떻게 생각했나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내가 생생하게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1장 22~23절 이 시대는 가짜가 만연하는 시대입니다. 가짜 예언자 시드기야가 참예언자 미가야의 빵을 때리는 시대입니다(왕상 22:24). 이러한 시대에는 순전한 복음이 점차 사라지고 세속적인 성공과 극단적인 신비주의가 성도의 마음을 장악하기 쉽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요구하는 표적과 헬라인이 듣고 싶어 하는 지혜 대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과 공의와 만나는 십자가만이 '진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세상의 지혜와 능력에 놀려 주님의 십자가를 약하고 미련한 것처럼 치부했음을 회개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여전히 십자가 구원을 비웃는 이들에게 전도를 쉬지 않게 하소서.		

매일 Q.T.		값진 구원을 선물하신 주님만 자랑하십시오	날짜 : 5월 4일
찬양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본문	고린도전서 1:26~31		
말씀요약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해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목상질문 1	미련하고 약한 자들 1:26~29 하나님이 약한 것들, 천한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이 드나요?		
목상질문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1:30~31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총은 무엇인가요?(30절) 내가 자랑하고 전할 주님의 은혜는 무엇인가요?		
한절묵상	고린도전서 1장 29절 미성숙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은 허영과 허세는 자신을 돋보이게 포장하려는 '자기 자랑'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랑을 멀리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전15:10)라는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승리한 이후 자기 공적을 자랑하는 기념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묵묵히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삼상7:12)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미련하고 연약한 저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격할 뿐입니다. 세상이 자랑하는 지식과 능력, 부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폐하사 부끄럽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 십자가만 사랑하고 자랑하게 하소서.		

매일 Q.T.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깨우치고 전하는 복음	날짜 : 5월 5일
---------	----------------------------	------------

찬양	찬송가 196장 성령의 은사를
본문	고린도전서 2:1~9
말씀요약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말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습니다.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세 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통치자들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목상질문 1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2:1~9 바울이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인간적 지혜를 따를 때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는 어떻게 다른가요?
목상질문 2	감추어진 하나님의 지혜 2:6~9 세상 지혜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내가 사모하고 구하는 지혜는 어떤 것인가요?
한절목상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마음을 사로잡는 화려한 설교가 갈채 받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십자가 복음은 화려한 수사로 포장할 필요 없는 단순명료한 내용입니다. 지식인이 많았던 아덴 지역에서 바울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앞세워 선포했습니다. 그 후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하기로 결심했고, 그 결과물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설교자가 말을 화려하게 꾸밀수록 복음은 빛을 잃습니다. 순전한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은 더욱 강렬하게 임재합니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지혜를 따랐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이 땅의 모든 세대가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소서. 구원을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온전히 깨달아, 날마다 주님 앞에 서길 간구합니다.

매일 Q.T.	성령의 계시로 깨닫는 십자가 복음	날짜 : 5월 6일
---------	-----------------------	------------

찬양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본문	고린도전서 2:10~16
말씀요약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에 그분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기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목상질문 1	성령으로 보이심 2:10~13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분별하고 깨우치도록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목상질문 2	신령한 사람 2:14~16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은 각각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삶을 추구해야 할까요?
한절목상	고린도전서 2장 12, 14절 종교의 핵심은 인간이 '신(神)'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을 찾아오십니다.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분의 진리를 인간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성도는 성령의 일을 믿지 않는 육에 속한 사람과는 달리 '보혜사 성령'을 통해 진리를 알게 된 존재입니다(요16:13).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성령과의 사귄'에 민감하거나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십시오.
적용	
오늘의 기도	주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제 마음을 깨우쳐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상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알리게 하소서.